

인터뷰 '제22차 Tri-CHOD' 업무 총괄한 권영민(공군소장) 합참 전략기획부장

“3국 공조 추동력 유지 의의…안보협력 발전 모색”



한국서 3국 최고위급 대면 첫 회의
미 합참의장 취임 첫 방한 등 연계

권영민(공군소장) 합참 전략기획부장은 지난 11일 열린 ‘제22차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Tri-CHOD·트라이 차드)’가 개최되기 까지 관련 업무를 총괄했다. 회의 계획 수립 단계부터 집행, 미·일 측과 업무 협조 및 의견 조율, 한미와 한·일 양자회담까지 모든 업무를 관장했다. 권 전략기획부장에게 이번 회의 개최 배경과 의의, 평가 등을 들어봤다. 조아미 기자/사진=합참 제공

- Tri-CHOD 회의는 언제부터 시작됐나?

“2010년 화상회의(VTC)로 시작해 2014년부터 대면 회의로 추진해 왔다. 지난해까지 총 21회 회의를 열었다. 이제까지 대면 회의는 미국에서 10회, 한국에서 1회, 일본에서 1회 총 12회 열렸다.”

- 회의를 진행하는 주된 목적은?

“고도화된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다. 또 고위급과 교류하고 유대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올해 회의의 목표는 무엇이었나?

“3국의 안보협력에 대한 추동력을 유지하고, 한반도 및 역내 안보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3국 간의 안보협력 이행상태 확인,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기획됐다.”

- 특히 한국에서 3국이 모인 회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나라에서 3국이 대면해 개최하는 한국 합참 주도의 최초 회의다. 2019년 11월 한국에서 한미 군사위원회회의(MCM)를 계기로 한미연합사(용산)에서 실시했었지만, 당시엔 한국과 미국만 대면으로 회의에 참여했다. 일본은 VTC로 참석했다.”

- 이번 Tri-CHOD 회의를 평가한다면?

“이번 회의는 3국 정상이 모두 바뀐 후 개최되는 첫 번째 회의다. 이대명 정부에서도 한·미·일 공조의 추동력을 계속 유지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15년 만에 이뤄진 일본 통합막

료장 방한, 미국 합참의장 취임 후 첫 방한과 연계한 회의이기도 하다.”

- 미·일 합참의장의 방문은 몇 년 만인가?

“댄 케인(공군대장) 미국 합참의장은 취임 이후 최초의 방한이다. 요시다 요시히데(육상자위대 대장) 일본 통합막료장은 2010년 오리키 료이치 통합막료장 방한 이후 15년 만이다.”

- 올해 한국에서 회의를 개최하기로 한 배경은?

“지난해 6월 한·미·일 국방장관회에서 각국을 순환하면서 회의를 개최하는 것에 3국이 합의했다. 지난해 일본에서 열린 후 올해 한국에서 개최되는 것이다.”

- 새뮤얼 퍼파로(해군대장)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이나 주한·주일 미군사령관이 참석한 이유는?

“한미 합참의장과 일본 통합막료장이 회의의 주체고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 주한·주일 미군사령관은 회의 참석 대상이다. 또한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한·일이 포함된 인·태 지역 담당 전투사령관이다. 주한·주일 미군사령관은 한·일에 주둔하는 미군사령관으로서 회의에 참석해 역내 정세 및 안보 상황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국방부, 드론봇챌린지 예선 종료…7개팀 본선 겨룬다

원거리 자폭드론 등 2개 종목 경쟁
민간 첨단기술·군사적 활용성 평가

오는 9월 열리는 ‘제4회 국방부장관배 드론봇챌린지’ 본선 진출팀이 7개팀으로 압축됐다. 대회 수상팀은 총 1억2000만 원의 상금과 군 시범운용(임차) 사업 참여 시가점을 부여받는다.

국방부는 지난 11일 “올해 드론봇챌린지 예선 대회가 마무리됐다”며 “드론작전 사령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의 엄격한 심사 끝에 7개팀이 본선에서 맞붙게 됐다”고

밝혔다.

드론봇챌린지 대회는 ‘드론’ ‘로봇’ 두 분야에서 민간 첨단과학기술과 군사적 활용성을 평가해 우리 군의 수요와 연계하기 위해 기획됐다. 올해는 드론 부문에 집중해 ‘원거리 자폭드론’과 ‘드론킬러드론’ 두 종목으로 진행 중이다.

본선에는 두 종목에 걸쳐 △IF System △AM system △와우미래기술 △에이지

와이, 드론킬러드론 종목 △아크본 △경북대·무지개연구소 △한서대·한울드론 팀이 나선다. 본선은 지정된 시나리오에 따른 실제 임무수행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펼쳐지며, 각 팀 고유기술 보호를 위해 비공개 기술 경쟁으로 치러진다.

국방부는 본선에서 종목별 최우수·우수 1팀씩 총 4팀을 선발한다. 수상팀은 상금(최우수 4000만 원·우수 2000만 원)과 상

패를 받는다. 최우수팀은 향후 시범운용 사업 참가 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최장식(육군소장) 국방부 첨단전략기획관은 “대회 참가팀들로부터 국방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우리 국민의 저력과 군에 대한 깊은 애정을 느꼈다”며 “국방부는 민간의 첨단기술과 창의적 대응방안을 적극 발굴하고, 군 전투력 향상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해령 기자

Google Play

App Store

대한민국 국방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병영생활 고충,
군범죄·성폭력,
마약범죄, 방위사업비리,
병영안전 신고/상담,
군인 사칭 확인 상담

24시간 365일! 사이버 신고/상담은 국방 헬프콜 1303

365일 24시간,
군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입니다

☎ 무료상담 010-5342-6179

대표 변호사 이 선 우

주요 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제14회 사법고시 합격
- 전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 서울지방검찰청 수원지청 검사
-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장
- 수원지방검찰청 형사3부 부장검사
- 대구지방검찰청 형사부 부장검사
-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형사 부장검사

전문분야

- 형사팀 : 보이스피싱 폭행 성범죄 금융범죄 등
- 민사팀 : 추심 독촉 압류 등
- 부동산팀 : 분양권분쟁 경매 등
- 회생팀 : **개인회생·빚 탕감 (95% 이상 감면)**

법률사무소 청하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50길 41, 4층(서초동, 백송빌딩)

☎ 무료 상담 010-5342-6179 이메일 문의 chlawday@gmail.com 팩스 02-6280-8280